

아동발달 및 성장에 대한 녹용의 효과

신준식 박사 / 자생한방병원장

I. 머리말

임상적으로 녹용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증은 수많은 문헌에서 거의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다. 단지 현대 과학적인 임상 통계, 임상 병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비과학적이라는 말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임상 검사 방법들을 동원하여 녹용의 효능을 검증한 결과 환자 진료나 건강 장수 보약으로서의 효능이 탁월하여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녹용은 인간 생명의 근원적인 요인을 증가시키고 활성화하므로 성장과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그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성장계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건강과 뇌세포의 분화작용을 촉진시켜서 학습과 기억력 증진에 효력이 강함을 입증하였으며 장년에게는 건망증해소, 노년에게는 건망과 치매예방 치료에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녹용은 일체의 허약인, 부인의 산전 산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면역 증진 효과뿐 아니라 생리 활성 반응

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녹용은 오장의 기능을 왕성케 하면서 신체 각 기관의 생리 기능을 촉진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생명에 근원적인 힘이 모두 신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으로 한의학의 원리이다. 이 콩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인간은 장수를 누리고 신체적인 강한 생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II. 생명의 근원인 신장(腎臟)

인간 생명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는 한의학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신장기능에 연유된다고 하여 치료해왔다. 만약 장기의 생리기능이 저하가 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반응하는 약물은 바로 녹용인 것이다. 우선 신장의 한의학적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장(腎臟)은 선천의 정(精)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부의 일체 정교한 물

질 즉, 기(氣) 혈(血) 정(精) 진액(津液) 등은 모두 오장에서 생성되는데 오장은 신장(腎臟)에 정기(精氣)를 저장하고 있다. 이 정기가 선천의 정(精)이다. 황제 내경에서는 선천의 정기는 부모에게서 받은 생식의 정으로 이것은 인체의 성장과 발육 촉진 작용을 하고 있다.

신장은 선천의 정(精)의 기능을 저장하는데 여기에는 정신이 있고 성명(性命)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신주정(腎主精)이라고 했다. 또한 신장에서 후천의 기(氣)는 음식에서 얻어진다. 선천과 후천의 정(精)은 상호 교류하고 촉진하고 자양을 얻게 한다. 진기(眞氣)는 또 원기(元氣)라고도 하는데 체내에서는 이것을 정기(精氣)라고 부른다.

2. 신장(腎臟)은 생식의 정(精)

신기(腎氣)는 생식기능과 관계되고 신기가 충실할 때 신정(腎精)이 충만하게 되면 후대까지 생육이 번성하게 된다. 신기(腎氣)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충실해지고 생식 기능이 촉진되며 인지가 발달하게 된다. 만약 신기가 쇠약해지면 생육기능이 감퇴되어지고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여자는 임신을 못하고 남자는 생산할 수 없게 된다.

3. 신장(腎臟)은 원음원양(元陰元陽)

장부에도 음양이 있고 신장에도 신음(腎陰)과 신양(腎陽)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장의 특수한 생리 기능이다. 신음(腎陰)은 원음(元陰),

진음(眞陰), 진수(眞水)가 있고 신양(腎陽)에는 원양(元陽), 진양(眞陽), 진화(眞火)가 있다. 신음은 인체의 음액의 근본이 되고 신양은 인체 양기의 뿌리이다. 그래서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을 위협받는다.

원양(元陽)은 사람의 생명을 주도하는 작용을 하고 원음(元陰)은 생명활동의 기초물질이다.

4. 신장(腎臟)은 원기(元氣)의 근본

신기(腎氣)는 원기(元氣)와 진기(眞氣)이다. 원기는 단전(丹田)에 저장되어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만약 원기가 충실하면 생명 활동이 완성케 되고 신체가 건강하며 정신력이 강화되고 사유활동이 민첩하고 영적 민활성 및 운동력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원기가 허약하면 생명력이 저하되고 신체가 허약하며 정신이 위축되고 사리가 총명하지 못하며 감각과 동작이 둔해지고 질병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III. 신장과 장부 관계

1. 신(腎)과 뇌(腦)

뇌의 기능으로서 머리는 정명(精明)의 부로 정기(精氣)를 말하였으며 또, 뇌는 원신(元腎)의 부라고도 하였다. 사람의 정신과 신지(神志)활동은 뇌에 귀속되고 뇌 기능은 뇌수(腦髓)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척수에서 나와 두

귀를 통해서 뇌에 이르게 된다.

만약 뇌수가 부족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아랫다리가 시큰거리며 어지럽고 눈은 물체를 볼 수가 없고 나태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뇌 질환은 신정(腎精)에 관계된다. 정(精)이 신장에 저장되고 이것은 뇌에 통달해서 뇌수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정(腎精)이 부족하면 골수가 공허해지고 뇌에 영향을 받지 못하므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물체가 모호하고 건망증을 일으키게 된다.

2. 신(腎)과 골(骨)

골은 인체 내에서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므로 골수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여야 골수가 잘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신주골(腎主骨), 골생수(骨生髓)라고 하였다. 신정이 충실하면 골수에 영양이 풍부하므로 견고한 힘이 있고 발육이 정상이며 운동을 잘하게 되지만 그 기능이 약화 되면 골질이 약화되고 골절이 자주 발생하며 어린아이는 머리뼈의 봉합이 늦어지고 연골이 무력해지고 허리가 굽게 된다.

또 치아는 신정에서 자양분을 받아 성장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완성케 되면 치아가 충실하고 견고하며 윤택이 있으며 저장력이 활성화된다. 만약 신정이 부족하면 치아가 마르고 흔들리며 심지어는 탈락하고 만다.

IV. 신장(腎臟)질환의 치료

1. 신음양(腎陰陽)의 虛證의 증상과 치료

증상 : 허리가 연약하고 쉽게 피곤하면서 기운이 없고 얼굴이 하얗고 형체가 마르고 오심번열, 음식감소

치료 : 우귀환+육미지황환+녹용

2. 신노(腎勞, 기(氣) 혈(血) 근(筋) 육(肉) 골(骨)의 손상)

증상 : 허리와 척추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기운이 없고 뼈골이 쭈시면서 미열이 나고 신체가 마르고 뼈에 힘이 없음.

치료 : 좌귀환+녹용

3. 신적(腎積)

증상 : 신장이 붓고 커지며 하복부에 덩어리가 있고 오래되면 해소, 천식, 뼈가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이 특징임.

치료 : 우귀환+실소산+녹용

4. 만성 임질(淋疾)

증상 : 오래되어도 낫지 않고 소변이 잘 배설 안 되며 심한 노동시 증상 악화, 허리와 무릎이 시고 아프며 기운이 없고 피곤함.

치료 : 무비상약환+녹용

5. 신(腎), 방광(膀胱)기능 실조

증상 : 소변이 곤란하며 양이 적고 방울처럼 나오고 심하면 소변을 못 봄.



치료 : 제생신기환+녹용

치료 : 우귀환+상표초산+녹용

6. 뇨탁(尿濁)

증상 : 비신허약 증상으로 소변이 혼탁하고 색이 쌀뜨물 같으며 배뇨시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낌.

치료 : 녹용보삼환

11. 치매

증상 : 기억능력 상실, 이해력 부족, 판단력 부족, 계산능력 부족, 방향력 상실, 자제력 상실.

치료 : ① 칠복음+녹용, ② 금괴신귀환+녹용

7. 유뇨(遺尿)

증상 : 잠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것. 신방광의 기능 허약으로 발병.

치료 : 안신정제환+녹용

12. 건망(健忘)

증상 : 선망(善忘) 희망(喜望) 다망(多忘)

치료 : 인삼양영탕+녹용

8. 소갈(消渴)

증상 : 구갈 목이 마르고 물, 음식을 많이 먹고 쉽게 배가 고프며 소변을 많이 보며 신체가 마름

치료 : 녹용환

13. 이명(耳鳴)

증상 : 귀에서 맴미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남.

치료 : 인삼양영탕+녹용

9. 오지(五遲), 오연(五軟)

증상 : 오지-소아가 서고 걷고 행동하고 치아가 늦게 나고 발이 늦음. / 오연-머리, 목, 손, 다리, 근육이 연약함

치료 : ① 오지-팔장탕+녹용, ② 오연-치위산+녹용

14. 요통(腰痛)

증상 : 신허요통

치료 : 우귀환+녹용

10. 허로(虛勞)

증상 : 신체의 장부 기능 허약, 음양 기혈 부족을 총칭한 것.

15. 비증(痺證)

증상 : 근육, 골격, 관절의 동통, 마비, 보행장애.

치료 : ① 양화탕+녹용

② 녹용+숙지황+부자+보리(한약으로 복용)

<다음호 계속>